

사회

“수돗물 못 믿겠다” 시민들 불안 확산

광주시 부실대처·요금 환불 요구 등 후폭풍

불순물 응집제가 과다 투입된 '산성 수돗물'로 광주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이 가중...

남구·북구 일부지역에서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의심하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의하고 있다. 화학약품이 과다 투입된 수돗물을 마신...

라나 '수돗물 오염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현장 7급 근무자가 상부 보고 없이 소석회 살포작업 등 응급조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

에 연루되면서 장기간 공석인 점도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생수 지원, 환불 뒷북>=광주시는 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운영정수장 급수지역과 민원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수 5760병을 긴급 지원했으며, 저장조 등에 잔류가 의심...

비브리오패혈증 올 첫 사망

순천 거주 70대

울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 사망자가 발생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에 거주하는 추모(77)씨가 지난 3일 순천성 가톨릭병원을 거쳐 전남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피부 상처 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비브리오패혈증 양성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12일 오후 숨을 거뒀다.

rio vulnificus)이 많이 증식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16일 서해연안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처음 검출됨에 따라 지난 2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대책을 전 시군에 시달하고 고위험군 명단 파악 및 예방수칙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지시한 바 있다.

니원침 (8566) 김종두



박주선 의원 공소사실 전면 부인

동구 부정선거 첫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시 동구)이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박 의원은 14일 오전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유대명 광주 동구청장과 함께 출석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첫 공판에서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립, 경선운동 방법 위반, 동장 모임 참석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할 기록을 검토한 후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앞서 기소된 민주통합당 경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광주시 동구 경선 과정에서 동구 계림1동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 사조직과 유사기관을 설립하도록 보좌관 등에게 지시하고 지난 1월19일 오후 6시30분께 화순 모 식당에서 동구 동장 13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 의원을 기소했다. 박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16일 오후 열린다.

순천서 동일범 편의점 강도

순천에서 동일범으로 소행으로 추정되는 편의점 강도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새벽 3시 47분께 순천시 조곡동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쓴 30대 남성이 흥기로 여영업원 김모(19)양을 위협해 현금 9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또 10분 후인 새벽 3시 57분께 인근 풍덕동의 한 편의점에서도 동일범으로 보이는 남성이 종업원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손님이 들어오자 그대로 달아났다.



25t 트레일러 벌러덩

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14일 오전 11시30분께 강진군 군동면 풍동마을 앞 국도 2호선에서 장흥에서 강진으로 향하던 박모(44)씨의 25t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시외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가 전복, 박씨와 시외버스 운전사와 승객 등 15명 중 1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교통사고 길 막히고, 소매치기 날뛰고

여수박람회 잇단 사고

여수박람회 개최 3일째인 14일 오전 9시35분께 박람회장 주 진입로로 인 국도 17호선 순천~여수 간 자동차 전용도로 끝 지점인 소라면 덕양부근에서 대형 트레일러(운전자 김

모씨·55)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측 콘크리트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가 쓰러져 2개 차로를 가로막으면서 뒤따라오는 차량들이 진행하지 못하고 정체됐다. 이 때문에 박람회장으로 가는 일대 행렬이 이어졌다. 경찰이 출동, 1

시간 만에 트레일러는 견인조치돼 소동이 재개됐지만 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박람회 최종 리허설 당시 4건

의 소매치기 피해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된데 이어 개막 이틀째에도 1건이 발생, 여수경찰서는 소매치기 전담반을 투입해 검거에 나섰다. 경찰관계자는 “소매치기 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람객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갑을 뒷주머니에 넣지 말고, 가방을 앞으로 메고, 인파가 많이 붐비는 곳에서는 목걸이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관람객의 주의를 당부했다.

“천하장사가 광고 하길래...”

건강식품 사기단 검거

전직 유명 씨름선수가 포함된 사기단 70명이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팔아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1980년대 천하장사를 지낸 씨름선수 이모(55)씨는 이 사기조직의 속칭 ‘바지사장’ 겸 강사를 맡아 약품의 효능을 과대선전하는 역할을 했으며, 사기단은 총책과 모집책, 강사, 판매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당진경찰은 14일 무료관

광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집한 뒤 저가의 건강기능식품을 10배 가까이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2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이모(55)씨 등 70명을 검거, 이씨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단의 총책인 이씨는 지난 1월 충남 금산군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을 차린 뒤 송모(여·79)씨 등 2000여명에게 ‘M식품’이라는 이름의 원가 4만원짜리 저가 상품을 33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3월말까지 모두 7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투숙 여성 현금 슬쩍 파렴치男

○20대 남성이 스마트폰의 ‘주변인 검색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서행. ○1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0)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했던 박모(여·28)씨의 현금 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 ○박씨는 경찰에서 “2년전부터 만나면서 친한 누나와 동생 사이로 지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이라며 처벌을 요구.

우리가족의 건강은 휘나핫이 지킨다. HWINA HOT. 반신욕 물없이 즐긴다. 무료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물없이도 할수 있는 휘나핫 반신욕.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사우나를 즐길 수 있고, 편히 앉아서 TV나 신문 등을 볼수도 있어 최근 획기적인 사우나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속병,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참옷 골드. 목단방. 목단방은 지식경제부가 후원하고 충북 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육천참옷 AIS사업단의 지원을 받았습다. 가족 건강 생각하는 당신 마음을 담았습니다. 평안도 명산 포수들의 비법을 되살렸습니다. 옷섬마을 명산 목단방 진액, 그 원료가 다릅니다. 게르마늄 광천수로 유명한 삼남리 186미터 원수 사용. 이대해 온나무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냅니다.